

전북대 개발 한우 경매 시스템 현장 적용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유종사업단·정읍한우협회·나우리·팜풀 등과 산학협력 구축… 국내 첫 빅데이터 기반 한우 온라인 거래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한우 경매 시스템을 개발한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유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이 이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과 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를 비롯해 전주 소재 IT 기업인 (주)나우리,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주)팜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를 비롯한 기관 및 기업들은 한우 유전능력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경매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 시스템 보완에 나서고, (주)팜풀은 한우의 유전능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온라인상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키로 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단위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의 혈통과 이력 및 도축 정보 등을 수년 간 추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규모의 한우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유전능력을 추정, 이를 온라인상에 제공해 데이터 중심의 온라인 경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한우 거래에 있어 시장의 시각과 경험에 의존한 거래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거래가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면 한우경매 시장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주)나우리측은 “올 하반기 중에 이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완 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그간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에서 거래됐던 수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시장에서 최고가에 낙찰됐던 한우의 유전능력이 우수했던 한우의 최종 도축 성적을 비교하였을 때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들의 도축성적이 더 좋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박승술 지부장은 “수십 년간 한우 개량을 위해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전 시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조연옥 중국어학원 기초 중국어 무상 교육 실시

호원대학교 다문화종합지원센터가 군산시 조연옥 중국어 학원과 함께 다문화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중국어 무상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여름방학 중에 기초 중국어 무상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 행사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후원하고 호원대 다문화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해 한국다문화이주여성연합협의회 7개 국가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이중 언어 교육을 원어민으로부터 직접 배우며 흥미를 고려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조연옥 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중국어를 통한 기초적인 언어소통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흥순경 다문화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다문화이주여성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집중 지원해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책으로 소통하는 풍요로운 삶’ 만들어가요!

도교육청 학부모 독서교육 마련… 9일부터 누리집 통해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부모를 위한 독서교육을 마련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책으로 소통하는 풍요로운 삶 ‘2021년 책소풍 학부모 독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독서력 향상으로 건강하고 주도적 삶을 위한 자녀의 양육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독서교육은 8월 23일부터 9월 11일 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23일과 27일에는 복효근 시인이 강사로 나서 ‘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30~31일에는 김선정 등화작가가 들려주는 등화 이야기가 마련된다. 등화를 통해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

진다.

9월 3일에는 우석대학교 이재규 교수가 책으로 만나는 우리 미래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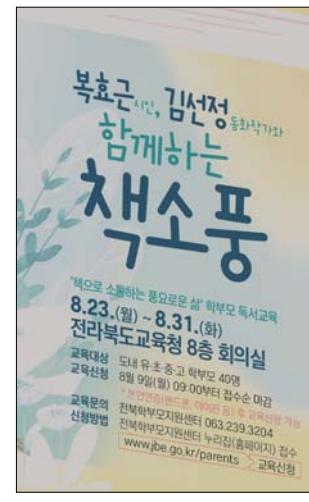
교육은 각각 해당 날짜에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오전 10~12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9월 10일과 11일에는 책방 ‘잘 읽은 언어를’을 운영하며 작가로도 활동중인 이지선 대표가 참여한다.

이 대표는 ‘우리 동네 아지트 책방 사용법’, ‘우리 아이 책방에서 놀면 독서는 덤’ 등을 주제로 자녀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10일 교육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11일 교육은 전주 금암동에 위치한 책방 ‘잘 읽은 언어’에서 진행된다. 독서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9일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https://www.jebo.go.kr/parents/index.jbo)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장애인 이용자 위한 ‘책배달 서비스’ 시작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통해 배달·수거까지

전북대학교 종양도서관(관장 정안성)이 장애 이용자를 위한 ‘책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장애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는 이 대학 종양도서관이 정보 취약계층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현한 것이다.

도서관은 그간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 학생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분산 소장 자료의 도서대출 칭구를 일원화해 장애학생을 위한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직접 방문이나 본인부담 태泱을 통해 수령해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도서관은 장애 학생 및 일반인 장애 이용자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책배달 서비스를 구현했다. 대학 내의 경우 직접 배달을 해주고, 교외는 무료 택배로 배송해주기로 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도 간편하다.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

/장은성 기자

교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 초·중등 교사 60명 대상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일 ~13일까지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2층 상영관에서 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2021 교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원은 3~4일, 5~6일, 중등교원은 10~11일, 12~13일 이틀에 걸쳐 각 회차별로 20명씩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디어 교육환경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설계와 운영 능력을 함양해 교육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개념과 필요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역량 ▲미디어 장르별, 교과별 수업 사례와 교육 방법 ▲뉴스 읽기



기와 비평의 이해 및 교육설계 ▲유튜브 읽기와 비평의 이해 및 교육설계 ▲온라인 플랫폼 읽기와 비평의 이해 ▲디지털 시민성 키우기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읽기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를 바탕적으로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정보 읽기의 힘을 길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